

접착제 사고 주범은 유기용제!

유성 접착제 생산 전체의 30% ... 환기장치 설비 필수

청소년들의 접착제 흡입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7월18일 송파구 잠실동의 접착제 흡입 사망사건은 다시 한번 접착제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유성 접착제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계 유기용제에 고무를 희석시킨 것으로 유기용제가 70% 함유되어 있다.

유기용제는 도료의 제조·배합, 전자제품·금속제품의 세척, 합성수지·접착제·화공약품 제조, 인쇄, 물질의 추출, 드라이클리닝 등의 공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써 독성을 가지고 있다.

유기용제는 쉽게 휘발하여 호흡기, 피부, 소화기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면 불면, 불안, 두통, 등의 신경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간, 신장, 혈액, 시각장애 등의 급·만성 장애를 유발한다.

현재 생산되는 접착제 가운데 유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전체 생산량의 30%에 머무른다.

단, 유성 접착제 가격이 저렴하고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건축 및 산업용 수요처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용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 환기장치 설치 ▷취급상의 주의표시와 경고표시 숙지 후 사용 ▷밀폐된 장소에서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착용 ▷탱크나 갯 등의 옥내 작업장내 공기 중 유기용제 농도 측정 ▷화기사용 금지 등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유기용제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취급상의 유의 사항에 대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혜련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4>